『신앙과 학문』. 19(2). 83-124.

중년 아들·딸의 노부모 돌봄실천의지에 규범적 헌신과 정서적 헌신이 미치는 영향

- 부양부담의 매개효과와 성별 및 종교유무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신성자*
이원준**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아들과 딸이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과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양부담'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성별' 및 '종교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대구 및 경북지역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최종표본은 775명(남성 318명, 여성 456명)이다.

자료 분석결과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5개 경로('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 '정서적 헌신→돌봄실천의지', '규범적 헌신→부양부담감', '정서적 헌신→부양부담감', '부양부담감→돌봄실천의지')중에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경로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경로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부양부담'은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역할을 하였지만,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는 '부양부담'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응답자들이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유무'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노부모, 신체부양, 돌봄, 헌신, 부양부담감, 가족부양자, 성별, 종교유무

---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저자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4년 1월 30일 접수, 3월 24일 최종수정, 3월 25일 게재확정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요보호 노인들을 보살피는 공식적,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최근 들어 요보호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및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약화에 따라 공식 서비스의 대체적 역할의 중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Green, 1983, 박경숙, 2002:242 재인용), 공식 서비스로 대체하기 어려운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하며, 공식서비스의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도 가족의 역할은 필요하다(Litwark, 1985; Baldock, 1997 박경숙, 2001:242 재인용). 병약한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 돌봄 서비스는 시설 서비스에서 대체할 수 없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보호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적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Green, 1983, 박경숙, 2002:21 재인용) 가족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이원준, 2011).

선행연구(Schaie & Wills, 1996; 최혜경, 2002:83 재인용; 박영숙, 2002; 신영선, 2004:2; 신성자·이원준, 2012:61)는 가족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노인들은 특히 병약해졌을 때,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김혜연·김성희, 1999; 최혜경, 2001; 박현정·최혜경, 2001; 이원준·신성자, 2013:145), 성인자녀들도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를 자신이 돌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최배영, 1997; 박현정·최혜경, 2004:4 재인용; 송다영, 2004:208; 신영선, 2004:2). 주 부양제공자들 중에 다수가 성인자녀들이라는 사실(이미애, 2006:283; 박순미, 2008:75)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가족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족 돌봄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인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비율은 크게 감소되었다. 노인단독가구(62%)와 독거노인가구(21.5%)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인구주택총조사, 한국인구학회, 2010).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맞물려 가족기능과 역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최희경·이인숙, 2005:2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여왔기 때문에 가족돌봄 제공자의 여성 편중현상은 여전히 매우 뚜렷하다(윤현숙, 2001; 송다영, 2004; 윤은경·조윤득, 2008; 윤현숙·류삼희, 2007:196).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전담하던 기혼여성들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요보호 노인들을 돌보는 일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사노동, 아동 양육은 물론 요보호 노인을 보살피는 일 등의 돌봄 역할을 가족구성원들이 젠더(gender)를 초월하여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원준·신성자, 2011:17; 신성자·이원준, 2012:64). 신체부양이 필요한 노부모를 보살피는 일을 특정 가족원이 전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부모를 위한 가족 돌봄서비스(family care-giving service)도 젠더를 초월하여 성인 아들과 딸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가족요양보호사,[1])주간보호 서비스와 병행, 가정에서 개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서 가족이 돌봄보조, 요양 병원 및 시설에 위탁하고 가족들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돌봄 서비스 보조 등)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는 가족 돌봄 제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직업활동 및 사회활동 제한, 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등)을 지적한 바 있다(Brody, 1985; 김송애·조병은, 1991 재인용; 우국희, 1997; 조소연, 2001; 조추용, 2004; 이진숙, 2001. 이윤로, 2005:54 재인용; 장영은 외, 2008:80 재인용; Lee, 2006; Learner et al., 신영선, 2004:20; Folbre, 2001, 윤자영 역, 2007:73; 이민홍·윤응경, 2008:32). 돌봄 노동은 극도로 노동집약적 행위이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정과 존중이 전제될 때,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Folbre, 2001, 윤자영 역, 2007:87역, 이원준·신성자, 2011:2 재인용).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정서적 애착 및 친밀성이 노부모 부양행위의 강력한 선행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지지되어왔다(조윤주, 2003; Circirelli,1983; Caffrey, 1983; 이위환·권용신, 2005 재인용; 이원준·신성자, 2011; 신성자·이원준, 2012). 윤현숙·류삼희(2007:207-8)는 성인 자녀 돌봄 제공자가 노부모와의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원(예: 며느리, 사위)의 경우에는 부양부담감을 훨씬 더

1)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 제공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인데, 가정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약 13만 명)의 거의 절반인 49%(약 6만 5000명)가 가족요양보호사이고 이중에 약 65%(4만 3000명)는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동거가족 요양사로 추정되고 있다(최인희·김정현, 한국가족학회, 2013 춘계학회자료집).

느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혈연관계 유무'가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약해져 돌봄이 필요한 가정내 요보호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성인 아들과 딸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filial piety)는 인간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규범이지만,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효의식'(또는 효규범)은 약화되고 있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신성자·이원준, 2013:51). 가족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조병은(2007:70)의 연구는 노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 및 책임이라는 인식, 즉 '규범적 헌신'도 중요하지만, 병약해져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에 "정서적인 호감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 즉 '정서적 헌신'(장영은 외, 2008)이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개인에 따라 노부모 돌봄에 있어 '규범적 헌신'이 더 강한 경우도 있고, '정서적 헌신'이 더 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영은 외(2008:89)는 가족돌봄 제공자가 의무감에 의해서 돌보는 규범적 헌신수준과 우울증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성인자녀들이 병약한 노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이 '정서적 헌신'보다 '규범적 헌신'에 의해 수행될수록, 돌봄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Horowitz(1995)는 가족부양 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부양부담을 적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는데(이원환·권용신, 2005 재인용), 이는 가족가치 및 규범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힘든 노동이고, 이타적인 행위를 요청한다. 돌봄 당사자에게 상당한 인내심과 관용(tolenrance)이 요구된다(박경숙, 2002:246). 부모가 노화로 인해 병약해졌을 때, 많은 성인자녀들이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은 Wilson이 언급한 '혈연 이타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 개인의 가치와 신념은 노부모 돌봄헌신 및 돌봄실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돌봄역할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헌신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업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strengths)도 클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전국 돌봄가족협회(1997)에서 시행한 한 조사에서 돌봄 제공자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못지않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응답자들 중에 다수(70%)가 돌봄을 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Folbre,

2001, 윤자영역 2007:73). 돌봄이라는 힘든 노동도 개인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체험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는 '효'(filial piety)를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귀중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타성'과 '돌봄'은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타인을 돌보는 이타적인 행위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중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성인자녀의 '종교유무'는 부모 돌봄역할에 대한 성인자녀의 인지, 즉 '돌봄헌신'(규범적 헌신, 정서적 헌신)과 '돌봄 실천의지', 그리고 '부양부담감'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젠더(gender)를 초월한 가족돌봄역할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년여성 뿐 만 아니라, 중년남성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이원준·신성자, 2011; 이원준, 2012)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돌봄헌신'에 초점을 두어, '돌봄실천의지'에 대한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헌신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정서적 헌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규범적 헌신'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변화하는 현대 가족생활에서 성인자녀들의 노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과연 지속가능한 가족 서비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성인자녀들의 돌봄역할에 대한 '규범적 헌신' 및 '정서적 헌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돌봄실천의지'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변화하는 현대 가족생활에서 노부모 돌봄문제를 현실적인 당면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중년기의 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이들은 과연 얼마만큼 노부모 돌봄역할에 규범적으로, 정서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중년기의 아들과 딸들의 노부모 돌봄역할에 대한 '규범적 헌신' 및 '정서적 헌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돌봄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둘째, 중년기의 아들과 딸이 지각하는 '부양부담감'은 과연 '돌봄헌신'이 '돌봄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얼마만큼 유의한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간접효과에 '성별' 및 '종교유무'는 과연 얼마만큼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병약한 노부모들

을 돌보는데 성인자녀들의 돌봄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가족서비스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및 규범적 헌신과 돌봄실천의지

‘수발’은 병약해져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목욕, 취사,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종, 병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몸 수발 또는 신체부양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김태현, 1982; 조추용, 2004:79). 장영은 외(2008:81)은 수발 제공자의 수발역할에 대한 인지를 ‘수발헌신’의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수발은 신체적 돌봄의 개념이 강한데, 최근 수발이라는 용어를 ‘돌봄’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Meyer, Allen, Smith(1993)이 주장한 직무에 대한 애착이나 호의적 감정을 ‘정서적 헌신’, 직무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규범적 헌신’이라 명명하였는데, 장영은 외(2008:92)는 이를 토대로, 돌봄 역할에 대한 ‘규범적 헌신’ 및 ‘정서적 헌신’ 이라는 개념을 구축하여 소개하였다.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꺼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며,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대한 도리 및 책무감에 의해 참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다(장영은 외, 2008:83; 이원준, 2011: 4, 31).

鈴木親子, 谷口幸一, 俵 川達人(2004)은 가족돌봄 제공자(family care-giver)들이 돌봄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내가 돌봐 수고 싶다’라고 하는 애착이나 헌신의 마음과, ‘지금까지 신세를 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호혜적인 감정, ‘아내 또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하는 것은 당연’이라는 의무적인 감정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장영은 외, 2008:80 재인용). 요보호 노부모와 가족 돌봄 제공자인 성인 자녀의 사이에서 돌봄에 대한 애착, 그리고 노부모를 돌봄하는 의무적인 감정이 강할수록, 적극적인 돌봄행위를 하고 있다(Circirelli, 1993; 장영은 외, 2008:80재인용)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규

범 의식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한은주·최매영, 1997 재인용)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신 및 가족의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양옥경, 2002). 부모-자녀 친밀성 또는 정서적 애착 등이 노부모 부양의식 및 행위의 중요한 선행요인(Circireli, 1993; Carrerey, 2002; Carpenter, 2001; 김지영, 2001; 2002; 조윤주, 2002; 이위환·권용신, 2005; 이원준, 2011)이라는 사실은 노부모 돌봄헌신에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상기시켜준다. 전술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역할에 대한 인지를 정서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송애·조병은(1991)은 부양의식은 부양행동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총체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이위환·권용신, 2005:167 재인용). 이는 인식은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돌봄역할에 대한 인지', 즉 '돌봄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로 돌봄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성인 자녀의 노부모를 위한 돌봄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 및 상황(예: 부양부담감, 성별, 종교유무 등)에 따라서 성인자녀의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규범적 헌신'이 실제 돌봄실천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과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여부를 각각 규명해봄과 동시에, 직접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지각하는 부양부담감 차이, 성별, 종교유무 등)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부양부담감

부양부담은 부양자가 노인들에게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지하는 불편, 고생, 긴장 및 스트레스이다. 부양부담은 노인부양을 하면서, 부양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들이다(Cohen & Eisdorfer, 1989; George & Gwyther, 1986; 황해석, 2006:55 재인용). 선행연구는 가족 돌봄 제공자들(family care-givers)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감, 건강손상, 생활방식 및 사생활 침해, 자유시간의 감소, 직장 및 사회활동이 제한, 휴가, 장래 계획 등 시간분배, 그리고 가족성원들 간의 불화 및 갈등, 과도한 돌봄비용 등의 어려움을 종종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ody, 1985; 김송애·조병은, 1991 재인용; 우국희, 1997; 조소연, 2001; 장영은 외, 2008:80 재인용;Lee, 2006; Learner et al., 1991; 신영선, 2003:20 재인용; 이진숙, 2001, 이윤로,

2005:54 재인용; 이민홍·윤응경, 2008:32). 부양만족감이 클수록,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행동이 증가한다. 선행연구(최혜경 외, 2001:102)는 성인자녀들이 지각하는 부양부담이 클수록 실제로 부양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병약한 노부모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돌봄이라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돌봄 제공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개인이 특성, 처한 상황 및 중재요인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Pearlin et al(1990)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모델(한경혜·이서연, 2009:685)에서도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가족부양 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부양부담을 적게 지각하고(Horowitz, 1985, 이위환·권용신, 2005재인용; 김송애, 1990; 송현애, 1993; 이신숙·서병숙, 1993; 박경란, 1998), 부양의무감과 부양자의 부정적 감정과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송현애, 1986; 장영은 외, 2008:80 재인용), 가족돌봄 제공자들의 의무감에 의한 규범적 헌신이 우울증을 증가시킨다(장영은 외, 2008:89)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낮고 '규범적 헌신'이 높을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부담감을 더 많이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성인자녀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인지할수록 결과적으로 실제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양호한지 여부에 따라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 특히 심리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관계가 양호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부모를 돌보는 것에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다(김윤정·최유호, 2007; 박지영, 2012:163 재인용). 며느리가 딸에 비해 부양부담감을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혈연관계 여부'가 개인이 인지하는 돌봄 부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선행연구(윤현숙·류삼희, 2007:207-8)에서도 노부모를 돌보는 돌봄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을 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전술한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친밀성이 부모부양의 강력한 선행요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을 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오히려 부적 직접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3. 성별이 부양의식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남성은 재정적 부양자, 여성은 가정 책임자로 규정된 전통적인 정형화(stereotyping)는 여전히 성역할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다(조혜선, 2003:96). 성역할 규범은 '돌봄 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강조하여왔다. 돌봄업무와 같은 도구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부양의식 및 부양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남성이 부양의식 및 부양의무감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고경애, 1990; 이은경, 1999; 이희자·김영미, 1996; 최승원외, 1997; 최정혜, 1997)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보고한 연구결과(송현혜, 1987; 임인혜, 1986; 양옥경, 2002; 조윤주·이숙현, 2004; 김윤정·최유호, 2007:325)도 있다. 최근 김윤정·최유호(2007:325)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적 부양의식과 도구적 부양의식이 높다고 부양특성에 따른 성별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돌봄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강조해 온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체부양과 같은 정서적, 도구적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부양에 성인 딸이 성이 아들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성별에 따른 돌봄헌신 및 돌봄실천의 차이는 보다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은 돌봄헌신(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부양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보았다.

4. 종교와 부양의식 및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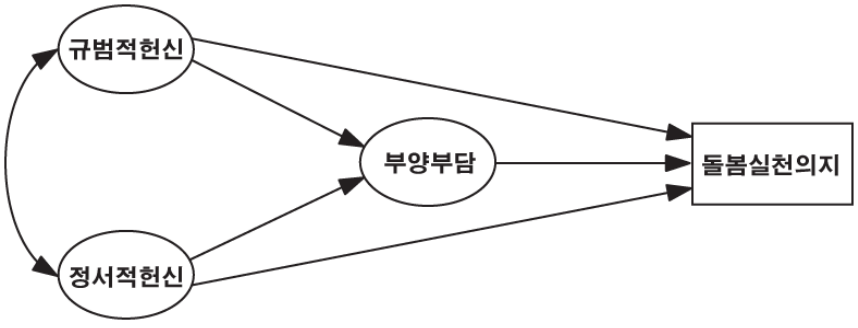
이타성과 돌봄은 종교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전제에서, 돌봄에 따른 어려움 및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돌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타성'이 요구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박경숙, 2002)에 공감하면서, 성인자녀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헌신, 지각하는 돌봄부담감, 그리고 실제로 돌봄실천의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종교 및 신앙이 노부모 돌봄헌신 및 돌봄행위에 미치는 인과관계(causal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다. 이은경(1999)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인과 무교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신영선, 2004:24 재인용).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의식과의 정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과 무교가 부양의식이 낮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 뿐 만 아니라, 무교가 포함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 없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 황해석(2006:55)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조사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관점에서 부양부담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종교와 부양의식 및 부양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전술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변인 간의 상관성 규명에 초점을 둔 분석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미치는 직접효과 또는 간접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유무'를 돌봄헌신(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 돌봄실천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부양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종교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의 성인 아들과 딸이 병약한 노부모 '돌봄실천의지'에 '정서적 헌신'과 '규범적 헌신'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양부담'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성별' 및 '종교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절변수: 성별, 종교유무

[그림 1: 연구모형도]

연구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노부모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규범적 헌신' 혹은 '정서적 헌신'은 '돌봄실천의지'에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둘째,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혹은 '규범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셋째, '부양부담'은 돌봄실천의지에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넷째, '정서적 헌신' 혹은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양부담'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미치는가?

다섯째, '종교유무' 및 '성별'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survey)는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한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협조를 구한 해당 대학 강의실을 방문하여 수강생들에게 설문취지를 설명하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들은 대학생 자녀로 부터 전달받은 '아버지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에 각자 응답한 후, 각자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송부하도록 요청하였다. 처음 대학

생 자녀에게 배부한 아버지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각각 1035부의 설문지 중에서 60세 이상인자와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남성, 12부; 여성, 15부)를 제외한 중년 남성의 설문지 529부와, 중년여성의 설문지 297부를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노부모 돌봄실천의지를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케이스(남편 199명, 아내 141명)는 다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인 적어도 노부모가 1명 이상이 생존한 경우만을 최종표본(774명)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표본인 774명(남성, 318명, 여성 456명) 중에서 실제로 부부자료(couple data)는 257쌍(514명)이다. 전체표본(774명) 중에서 160명(남성 61명, 여성 99명)은 부부 쌍체 자료가 아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표본특성은 대학생 자녀로부터 설문지를 받은 중년 남성들(아버지)과 중년여성들(어머니) 중에서, 부부가 모두 응답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에게 송부하지 않고, 한쪽 배우자만 설문에 응답하여 송부하였거나, 사별,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survey)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신성자·이원준, 2012:68).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신성자·이원준, 2012:69). 본 조사대상자는 적어도 부모님 중에 한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40세 이상~60세 미만의 중년 아들 (318명)과 중년 딸(456명)이다. 남녀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은 50세~55세 미만(56.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5세~50세 미만(23.6%), 55세~60세 미만(19.5%) 순이다. 여성은 40세~50세 미만(56.1%)이 절반이 넘고, 그 다음으로 50세~세 55세 미만(36.7%)이 많았다. 55세~60세 미만은 7.2%이다. 남성의 평균연령(51.7세)이 여성(49.2세)보다 약 2년 6개월 더 많다(신성자·이원준, 2012:69). 응답자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남성은 약 3.5%, 여성은 약 9.2%가 이혼 또는 별거상태이고, 나머지 다수(남성, 96.5%, 여성 90.8%)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학력은 남성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약 53.1%로 절반을 넘었다. 고등학교 학력이 36.2(115명)이었고, 중학교 이하는 10.7%(34명)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졸이 절반 이상(53.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16.4%)과 전문대(11.2%), 대학원(2.9%) 순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 및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신성자·이원준, 2012:69).

남성의 직업은 자영업이 28.3%(9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경영·관리직이 20.3%(65명), 생산·기능직은 15.4%(49명), 전문직·준전문직은 13.5%(43명), 교직은 6.6%(21명) 순이다. 임시·단순노무직은 4.7%(15명), 농·어업은 3.5%(11명), 판매·서비스

직은 3.1%(10명)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41.2%는 전업주부이다. 이는 아내의 취업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43.4%가 전업주부라고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영업(67명, 14.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52명, 11.4%), 생산·기능직(34명, 7.5%) 임시·단순노무직(30명, 6.6%)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준전문직(23명, 5%), 교직(20명, 4.4%), 사무직·경영·관리직(17명, 3.8%) 등은 남성의 직업분포에 비해 훨씬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중년여성들의 직업분포는 중년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배경을 지닌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 형편에 대한 물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이상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유 있는 편'(남성 15.6%, 여성 13.6%)보다 '어려운 편'(남성 20.5%, 여성 23.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많다. 남성의 약 80%, 여성의 약 76%가 자신의 현재 경제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것은 설문조사 대상자를 현재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된다(신성자·이원준, 2012:69).

응답자의 종교배경을 살펴보면,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은 34.3%(109명), 여성은 22.4%(102명)이다. 불교(남성 30.5%, 여성 36.6%)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남성 27.2%, 여성 31.1%)였다.

변수	집 단	남 성		여 성	
		백분율	(%)	백분율	(%)
연령	40세~ 50세 미만	75	23.6%	256	56.1%
	50세~ 55세 미만	181	56.9%	167	36.7%
	55세~ 60세 미만	62	19.5%	33	7.2%
	평균연령	51.7		49.2	
학력	중졸이하	34	10.7%	71	15.6%
	고등학교	115	36.2%	246	53.9%
	전문대	39	12.3%	51	11.2%
	대학교	86	27%	75	16.4%
	대학원	44	13.8%	13	2.9%

	전업주부(가사담당)	-	-	188	41.2%
	자영업	90	28.3%	67	14.7%
	판매·서비스직	10	3.1%	52	11.4%
	생산·기능직	49	15.4%	34	7.5%
	사무직·경영·관리직	65	20.3%	17	3.8%
직업	전문직·준전문직	43	13.5%	23	5.0%
	임시·단순 노무직	15	4.7%	30	6.6%
	농·어업	11	3.5%	5	1.1%
	군인·경찰	5	1.6%	1	.2%
	교직	21	6.6%	20	4.4%
	무직	9	2.8%	19	4.2%
혼인 상태	기혼	307	96.5%	414	90.8%
	이혼·별거	11	3.5%	42	9.2%
경제 상태	어려운편	65	20.5%	109	23.9%
	보통	203	63.8%	285	62.5%
	여유 있는 편	50	15.6%	62	13.6%
	없음	109	34.3%	102	22.4%
	불교	97	30.5%	167	36.6%
종교	천주교	23	7.2%	40	8.8%
	기독교	87	27.2%	142	31.1%
	기타	2	0.6%	5	1.1%
	없음	108	34%	98	21.5%
신앙 생활 상태	아주 약한편	59	18.6%	82	18%
	보통	91	28.6%	140	30.7%
	열심인편	38	11.9%	102	22.4%
	아주 열심인편	22	6.9%	34	7.5%
동거 형태	친(배우자)부모와 비동거	252	79.2%	384	84.2%
	친(배우자)부모와 동거	66	20.8	72	15.8%
부모 건강	나쁜 편/아주 나쁨	146	45.9%	200	35.5%
	보통	139	43.7%	212	46.5%
	좋은 편/아주 좋음	33	10.4%	44	9.6%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남성=318명, 여성=456명)

천주교(남 7.2%, 여 8.8%)는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신성자·이원준, 2012:69). 자신의 신앙생활을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과 종교에 대한 물음에서 '무교'로 응답한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남성 28.7%, 여성 30.7%)이 남성과 여성 모두 약 30%전후였고, '아주 약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은 18.6%, 여성은 18%로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신양생활에 '열심인 편' 또는 '아주 열심인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들은 약 19%, 여성은 약 30%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본 조사응답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자신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비율은 남성은 20.8%, 여성은 15.8%이다.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독거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신의 부모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수(남성 10.4%, 여성 9.6%)이고, 상당수의 응답자들(남성 45.9%, 여성 35.5%)이 자신의 부모 건강상태가 '나쁘다' 혹은 '아주 나쁘다'라고 보고하였다. 중년기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체부양이 필요한 노부모를 돌보일이 현실적인 당면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신성자·이원준, 2012:71). 표본추출이 무작위 표집방법(random sampling)이 아닌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년기의 아들과 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비교적 적절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표본추출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독립변수: 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

'돌봄'은 병약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대상에게 신체적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중, 병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부모 돌봄은 신체부양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원준·신성자, 2012). 돌봄헌신 care-giving commitment)는 '돌봄역할에 대한 인지'(장영은 외, 2008 재인용)이다.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emotional commitment)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다. '규범적 헌신'(normative commitment)은 돌봄역할에 도리, 의무 및 책임감에 의한 헌신을 의미한다(장영은 외, 2008:83).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및 '규범적 헌신'의 척도는 장영은 외(2008)가 사용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헌신’ 척도는 돌보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 자발성, 가치 있는 의미부여, 삶의 보람 등(4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규범적 헌신척도 문항(4항목)의 내용은 자신의 의무감, 우선되는 책임감, 자식의 직접 참여의무, 가족의 도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척도 모두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그런 편, 4= 아주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헌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66(.867), ‘규범적 헌신척도’는 .785(.785)이었다.

2) 부양부담:매개변수

신체부양을 하게 될 때 부양자로서 느끼는 부담감은 선행연구(Brody, 1985; 김송애·조병은, 1991 재인용; 우국희, 1997; 조소연, 2001; 이진숙, 2001; 이윤로, 2005:54 재인용; 장영은 외, 2008:80 재인용; Lee, 2006; Learner et al., 신영선, 2004:20; 이민홍·윤응경, 2008:32)를 참조하여,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 제한, 가족관계 문제, 부부관계, 돌봄업무부담 등을 선정하였다.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그런 편, 4= 아주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값은 .755(.756)이다.

3) 종속변수: 돌봄실천의지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를 위해서 성인 아들과 딸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노부모 돌봄을 실천하려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 문항(“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수발이 필요할 경우, 아들/딸인 나는 반드시 돌봄 봉사를 실천할 것이다.”)의 내용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그런 편, 4= 아주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돌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조절변수: 성별, 종교유무

‘성별’(0=남성, 1=여성), ‘종교유무’(0=종교무, 1=종교유)는 이분변수이다.

5)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5개 경로의 인과관계(직·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AMOS 1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 적합지수인 RMSEA, 상대적 적합지수인 CFI와 TLI의 값으로 제시하였다. '성별'(남성=0, 여성=1), '종교유무'(무종교=0, 유종교=1)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각각 검증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경로 계수값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구조동일성 검증하여 '최적동일화 모형'을 찾아 집단 간 각 경로크기를 제시하였다(표 5, 6).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홍세희, 2009; Schumacker and Lomax, 2004),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왜곡)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주요변인의 특성

노부모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및 '규범적 헌신'이 '부양부담' 및 '돌봄실천의지'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적 헌신' 또는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양부담'의 매개효과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게 위한 연구모형에 포함할 주요변인들을 4개 설정하였다. '돌봄실천의지'는 측정변수이고 나머지 '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 그리고 '부양부담'은 이론(잠재)변수이다. 3개의 잠재변수와 1개이 측정변수('돌봄실천의지')를 포함한 13개의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4개의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는 -.285~.618로 유의도(p)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13개의 측정지표/측정변수의 상관계수의 범위도 -.038~.683으로 절대값이 .8을 넘지 않은 수준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신선인, 2008:81).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한 결과, 종속변수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는데, 모형에 포함된 5개의 경로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

여할 수 있었다. 주요 이론(잠재)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이 정상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 추정치의 적합도가 정확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이원준, 2012:92). 모형에 포함된 4개의 변수들의 왜도는 .067~1.196, 첨도는 .033~.181이었다. 4개 변수들이 포함하고 13개의 측정변인들(indicators)들의 왜도는 .003~.279 첨도는 .062~-.195 이었다.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지 않았고, 첨도도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분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변량 결합분포의 왜도와 첨도의 결합통계량은 47.080(CR. 33.162)이었다. 모형에 첨가된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이룬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변량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배병렬, 2007).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4개 주요 변수의 평균값과 조절변수로 분석에 투입된 '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평균차이(t-검증), 그리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4개의 주요변수들은 모두 4점 척도이다.

분석내용		명수	변수명			
			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	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평균(SE)		774명	2.7904(.6404)	2.7516(.58031)	2.4716(.5636)	2.8500(.628)
왜도(SE)			-.088(.088)	-.086(.088)	.062(.088)	1.195(.088)
첨도(SE)			-.173(.176)	.033(.176)	.279(.176)	.181(.176)
남성평균(SE)		318명	2.8656(.6212)	2.9080(.5427)	2.4843(.5326)	2.9(.580)
여성평균(SE)		456명	2.7385(.6490)	2.64254(.5813)	2.4627(.5846)	2.82(.657)
t값(P)			2.728(.007)	6.423(.000)	.523(.601)	1.681(.093)
무종교평균(SE)		211명	2.73322(.6367)	2.7654(.58518)	2.5059(.6008)	2.83(.629)
유종교평균(SE)		563명	2.8126(.6409)	2.7465(.5789)	2.4587(.5489)	2.86(.627)
t값(P)			-.1557(.120)	.404(.686)	1.038(.300)	-.539(-.539)
	무교	211	2.7322 A	2.7650	2.5059	2.83
	불교	264	2.7540 A	2.7206	2.4697	2.81
종교	천주교	63	2.6587 A	2.7024	2.5556	2.81
	기독교	229	2.9138 B	2.7882	2.4192	2.93
	기타	7	3.1071 B	2.7500	.421	2.86
점수	**척도내용**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1~2점	부정적		16.5%	13.1%	28.2%	25.5%
3점미만	중간		22.3%	44.4%	40.2%	
3~4점	긍정적		50.3%	42.2%	24.6%	74.5%

〈표 2〉 주요변수 평균 및 기초 통계량 (N=774명) OK

부모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2.7904), '규범적 헌신'(2.7516), '돌봄실천의지'(2.850)는 모두 긍정적 수준인 척도점수 3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부양부담' 척도의 평균점수(2.472)는 '그렇지 않은 편'(2점)보다는 높고 '그런 편'(3점)보다는 낮은 중간점수이다. 이 네 변수들의 평균점수를 '성별'에 따른 두 집단 분석(t-검증)을 해 본 결과, '성별'비교에서 '규범적 헌신'에서만 성별차이가 있었다<표 2>.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 및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규범적 헌신'에서 중년 성인 딸보다 중년 성인아들이 더 높은 헌신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역할 사회화에서 돌봄과 같은 돌봄 역할을 여성들의 역할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에 대해 중년 딸 보다 중년 아들들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보다는 가부장제 하에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 또는 책임감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있다는 의식이 중년 남성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주요 제 변수들의 평균값을 '종교유무'별로 각각 두 집단 간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오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변수를 토대로 한 t-검증에 의한 두 집단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비교 또는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 간의 주요변수들의 평균차이는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과 같은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종교별로 구체적으로 네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에서는 '기타'종교와 함께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규범적 헌신' 및 '돌봄실천의지'에서도 척도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인 점수 차이는 사후검증결과 '정서적 헌신'에서만 기독교인들이 무교, 불교,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검토하였는데,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적합도(χ^2=254.207, df=51, p.000, TLI= .928, CFI= .945, RMSEA= .072)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3개)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는 .450~.860으로 상당히 높

아,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모형분석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χ^2=285.842, df=60, p.000, TLI= .925, CFI= .943, RMSEA= .070)는 좋았다. 본 연구모형에 투입한 잠재변인들은 이론적 개념으로 다중지표를 사용하였다. 3개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5개의 경로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규범적→부양부담감'(-.024), 이 한 경로에서만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4개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규범적 헌신'(.399)과 '정서적 헌신'(.119)는 '돌봄실천의지'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고, '부양부담감'은 '돌봄실천의지'에 부적 직접효과(-.182)를 미치고 있다. '정서적 헌신'은 '부양부담감'에 부적 직접효과(-.239)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및 '규범적 헌신'이 높을수록 '돌봄실천의지'가 향상되고, '부양부담감'이 많을수록 '돌봄실천의지'는 약화된다.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높아질수록, '부양부담감'을 적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접경로, 간접경로의 추정치와 유의도 검증				
직접경로	**표준화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t(p)**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024	-.013	.043	-.310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239	-.138	.044	-3.114**
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182	-.323	.067	-4.786***
정서적 헌신→돌봄실천의지	.119	.122	.062	1.950*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	.393	.397	.063	6.252***
간접경로	**표준화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p**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004	.004		.772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043	.045		.002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lower)		상한값(upper)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	-.035		.034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012		.096	
적합도 χ^2=285.842, df=60, p.000, TLI= .925, CFI= .943, RMSEA= .070				

***p<.001, **p.<.01, *p<.05,

〈표 3〉모형의 요인적재량

4. 최종 구조동일성모형: '성별', '종교유무'별 비교

본 연구모형에서 선정한 2개의 조절변수인 '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값의 비교를 위해 다집단분석(mu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인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indicators)의 내용에 대해 남성과 여성, 혹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각기 모두 유의미하게 동일하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카이자승치 차이값($\triangle\chi^2$)이 4.072이었다. 기저모형과 측정모형간의 자유도 9에서 임계치 값(16.92, 유의도 .05)보다 두 모형의 남성모형과 여성모형의 카이자승치 차이값이 모두 훨씬 적어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카이자승치 차이값($\triangle\chi^2$)이 14.070이었다. 기저모형과 측정모형간의 자유도 0에서 임계치 값(16.92, 유의도 .05)보다 두 모형의 종교가 없는 집단과과 종교를 가진 집단의의 카이자승치 차이값이 모두 훨씬 적어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인정되었다(표 4참조).

'성별'(남성=0, 여성=1)에 따른 모형비교를 위해서, 최적 구조동일화 모형을 찾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을 각각 검증하였다(표 4). 최적 구조동일성 모형을 찾기 위해서, 계수차이 검증을 토대로(표 5), 두 집단 간 경로차이가 가장 낮은 경로부터 동일화 제약을 가하고,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검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화 제약을 반복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신성자, 2011; 17-18). 전 경로에서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 본 연구의 최종모형(5단계 구조동일성 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4>에서 기저모형, 측정동일성 모형, 구조동일성모형(1~5)의 모든 적합도(χ^2, TLI, CFI, RMSEA)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조동일성 모형단계	χ^2	df	P	TLI	CFI	RMSEA	판정
성별 모형	기조모형	367.238	125	.000	.918	.937	.050	채택
	측정동일성모형	371.210	129	.000	.926	.938	.049	채택
	구조동일성모형(1)	371.029	130	.000	.926	.939	.049	채택
	구조동일성모형(2)	371.032	131	.000	.927	.939	.049	채택
	구조동일성모형(3)	371.070	132	.000	.928	.939	.048	채택
	구조동일성(모형4)	371.114	133	.000	.929	.939	.048	채택
	구조동일성모형(5)	371.210	134	.000	.930	.940	.048	채택
종교 유무 모형	기조모형	380.644	120	.000	.915	.935	.053	채택
	측정동일성모형	394.614	129	.000	.920	.934	.052	채택
	구조동일성모형(1)	394.614	130	.000	.921	.934	.051	채택
	구조동일성모형(2)	394.712	131	.000	.921	.934	.051	채택
	구조동일성모형(3)	394.097	132	.000	.922	.934	.051	채택
	구조동일성모형(4)	394.978	133	.000	.923	.934	.051	기각
	구조동일성모형(5)	394.507	134	.000	.922	.935	.051	채택

***p<.001, **p.<01, *p<.05

〈표 4〉 '성별' 및 '종교유무'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모형비교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를 동시에 제약하거나, 집단 간 계수차이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여 분석할 경우, 이전 단계에 잘못된 제약으로 인해 비교경로의 추정치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수차이검증에 근거하여 최적동일화 모형을 구해야 한다. 계수차이검정 과정은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구조동일화 과정을 거쳐 두 집단간 각 경로비교를 가장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최적 구조동일화 모형' 찾아, 이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집단의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조동일화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모형의 전 경로에서 두 집단(남성, 여성)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가 없었던 것처럼, 두 집단의 각 모형의 추정치간에는 비록 수학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표 6). 따라서 '성별'유무에 따른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유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두 집단 분석을 위한 '최적 구조동일화 모형'은 구조모형 4가 선택되었다 <표 4, 5>. 모형에 포함된 5개의 경로들 중에서 두 집단(종교가 없는 집단,

종교를 가진 집단) 간에 각 모형의 경로들 중에서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의 경로에서는 두 집단 간의 경로추정치가 비록 수학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정리하면, '성별'비교분석을 위한 '최적 구조동일성 모형'은 <표 4>에서 제시한 구조모형 5가 선정되었고, '종교유무'별 비교분석을 위한 '최적 구조동일성 모형'은 <표 4>에서 제시한 구조모형 4가 선정되었다.

모형	단계	규범헌신 →부양부담	정서헌신 →부양부담	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정서적헌신→ 돌봄실천의지	규범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성별모형	측정동일	-.055	.159	.204	.028	.181
	구조 1	-.054	.158	.203	**K1**	.357
	구조 2	**K2**	.203	.198	K1	.356
	구조 3	K2	.210	**K3**	K1	.316
	구조 4	K2	***K4***	K3	K1	.311
	구조 5	K2	K4	K3	K1	**K5**
	단계	**규범헌신 →부양부담**	**정서헌신 →부양부담**	**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정서적헌신→ 돌봄실천의지**	**규범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종교유무모형	측정동일	.008	-.379	-.864	.314	-1.763
	구조 1	**K1**	-.620	-.870	.314	-1.763
	구조 2	K1	-.622	-.923	**K2**	-2.507
	구조 3	K1	**K3**	-.947	K2	-2.491
	구조 4	K1	K3	**K4**	K2	**-2.351**
	구조 5	K1	K3	K4	K2	K5

***p < 001, **p < .01, *p < .05

* 각 단계별 진하게 쓴 숫자(t 값)는 각 단계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를 표시함.

〈표 5〉 '성별', '종교유무'별 경로계수차이 검정결과(t-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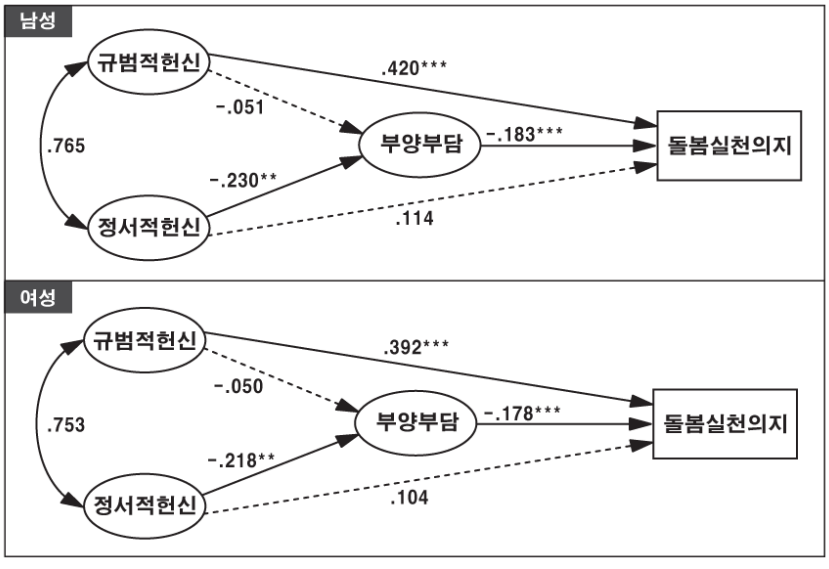
5. 최종 구조동일성모형

1) '성별' 최종 구조동일성 모형

'성별'비교 분석을 위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종교유무'별 비교분석을 위한 구조동일성 모형은 [그림 2], [그림 3]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남성모형과 여성모형의 각 모형에

포함된 5개의 경로 중에서 두 경로, 즉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남성 -.051, 여성 -.050)과 '정서적 헌신→돌봄실천의지'(남성 .114, 여성 .104)는 직접효과가 없었다. 즉 중년 아들과 중년 딸 모두 노부모를 위한 돌봄역할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유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서적 헌신'은 '돌봄실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남성 -.230**, 여성 -.218**), '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남성 .183***, 여성 .178***) 그리고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남성 .420***, 여성 .392***), 이 세 경로는 유의하였다. 즉, 중년아들과 중년 딸 모두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을 적게 가지며, '부양부담'을 많이 가질수록, '돌봄실천의지'가 감소하며, '규범적 헌신'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실천의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6>.

남성 모형과 여성모형에 포함된 전 경로계수들 중에서 계수차이 검증(표 5)에서 두 집단(남성,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는 단 한 경로도 없어, 모형 전 경로에 '성별'이 유의미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없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모형에 설정된 모든 경로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2: 성별 최적 구조모형도]

남성(N=318명)				여성(N=456명)			
직접 경로	표준 화계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 오차	직접 경로	표준 화계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 오차
규범적 헌신 →부양부담	-.051	-.030	.045	규범적 헌신 →부양부담	-.050	-.030	.045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230**	-.130	.045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218**	-.130	.045
부양부담감 →돌봄실천의지	-.183***	-.316	.067	부양부담감 →돌봄실천의지	.178***	-.316	.067
정서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114	.112	.063	정서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104	.112	.063
규번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420***	.418	.066	규번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392***	.418	.066
간접경로				간접경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09	.009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09	.009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42	.041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38	.041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	상한값	P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	상한값	P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26	.011	.508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24	.038	.521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42	.110	.004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10	.098	.004
적합도 χ^2=367.238 df=125 p.000, TLI= .923, CFI= .938, RMSEA= .050				적합도 χ^2=367.238 df=125 p.000, TLI= .923, CFI= .938, RMSEA= .050			

***p<.001, **p.<.01, *p<.05

〈표 6〉남성과 여성의 최적구조동일성 모형의 경로추정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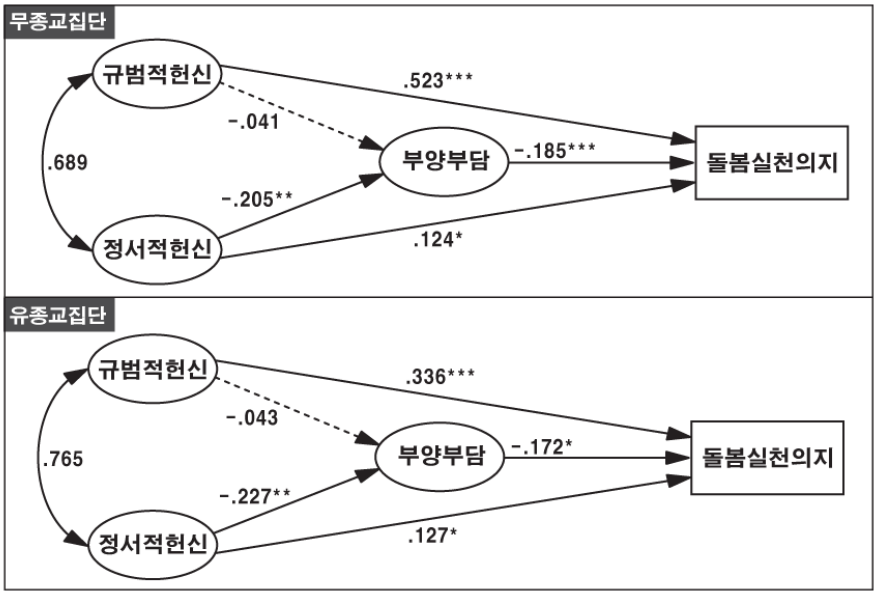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에서 '부양부담'(남성 .042** , 하한값 .042~ 상한값.110; 여성 .038**, 하한값 .038~상한값 .098)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는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았지만, '부양부담'을 완전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부양부담' 여부에 따라서 성인자녀의 '돌봄실천의지'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

지'의 경로에서는 '부양부담'(남성 .009 , 하한값 -.026~상한값.042; 여성 .038** , 하한값 .024~상한값. 010)이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교유무'별 비교를 위한 최종 구조동일성 모형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의 각 모형에 포함된 5개의 경로 중에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무종교 집단 -.054, 유종교 집단 -.043)은 직접효과가 없었다. 즉, 노부모를 위한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경로만 제외한 나머지 4개 경로, 즉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무종교 집단 -.205***, 유종교 집단 -.227***), '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무종교 집단 -.185***, 유종교 집단 -.172***),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무종교 집단 .124*, 유종교 집단 .127*), 그리고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무종교 집단 .523***, 유종교 집단 .336***)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과 종교를 가진 집단은 모두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을 적게 가지고, '돌봄실천의지'는 증가한다. '부양부담'을 적게 가질 때 '돌봄실천의지'가 증가하고, '규범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실천의지'는 크게 증가한다.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의 각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는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무종교집단의 경우,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523***)은 유종교 집단에서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336***)보다 훨씬 더 유의하게 높은 것이 차이검정(표 6)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중년 자녀들이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유무'는 유의미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표 7>.



[그림 3: 종교유무별 최적구조모형도]

무종교 집단(N=211명)				유종교 집단(N=563명)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규범적 헌신 →부양부담	-.041	-.024	.043	규범적 헌신 →부양부담	-.043	-.024	.043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205**	-.129	.044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227**	-.129	.044
부양부담감 →돌봄실천의지	-.185***	-.312	.066	부양부담감 →돌봄실천의지	-.172***	-.312	.066
정서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124*	.131	.061	정서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127*	.131	.061
규번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523***	.511	.074	규번적 헌신 →돌봄실천의지	.336***	.342	.068
간접경로				**간접경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08	.007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07	.007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38	.040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39	.040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	상한값	P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	상한값	P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030	.039	.581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029	.038	.598

→돌봄실천의지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10	.093	.007	→돌봄실천의지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010	.097	.006
적합도 χ^2=381.837 df=124 p.000, TLI= .919, CFI= .936, RMSEA= .052				적합도 χ^2=381.837 df=124 p.000, TLI= .919, CFI= .936, RMSEA= .052			

***p<.001, **p.<.01, *p<.05

〈표 7〉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 최적 구조동일성 모형의 경로추정치 비교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 모두,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에서 '부양부담'(무종교 집단 .038**, 하한값 .010～.093; 유종교 집단 .039**, 하한값 .010～.097)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은 모두 노부모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 높을수록 '돌봄실천의지'가 증가되는데, '부양부담'이 높을 경우,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상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에서 '부양부담'(남성 .008, 하한값 -030～상한값 .039, 여성 .007, 하한값 -.029～ .038)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성별' 및 '종교유무별' 각 집단 간의 잠재평균 차이분석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각 모형에 포함된 잠재(이론)변인들의 평균값을 각각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절편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절편동일성을 검정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카이자승값($\triangle\chi^2$=70.975, $\triangle$df=12)가 임계치인 21.03(P.05)보다 높아 기각되었다. 절편동일성 모형의 적합도(χ^2=402.255, df=123, TLI=.918, CFI=.924, RMSEA=.054)가 측정동일성 적합도(χ^2=331.280, df=111, TLI- 929, CFI=.940, RMSEA=.051)에 비해 나빠졌다.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어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할 수 없었다.

잠재변인	잠재평균차이			
	무종교	유종교 평균	평균오차	CR(P)
규범적 헌신	0	.020	.057	.344
정서적 헌신	0	-.076	.052	-1.465
부양부담	0	.030	.031	.031

$^{***}p < 001$, $^{**}p < .01$, $^{*}p < .05$

〈표 8〉잠재변인의 잠재평균 차이분석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에서는 절편동일성 검정 결과, 측정동일성모형(χ^2=354.524 df=111, TLI=.929, CFI=.935, RMSEA=.053) 절편동일성 모형(χ^2=365.817 df=123, TLI-930 CFI=935, RMSEA=.051)비교했을 때, 변화된 카이자승값($\triangle\chi^2$=11.293, △df=12)이 임계치인 21.03(P.05)보다 낮아 절편동일성이 인정되었다. 잠재평균 분석결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이나 종교를 가진 집단 간의 주요 잠재변인들, 즉, '정서적 헌신', '규범적 헌신', 그리고 '부양부담'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잠재평균 분석결과는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오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변인들 간의 두 집단 평균비교·분석결과(t-검증)에서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에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던 사실과는 다르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이론)변수들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분석할 경우,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과 같은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의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및 '정서적 헌신'이 '부양부담' 및 '돌봄실천의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 '부양부담' 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하기 위한 5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혹은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양부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개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성별'(남성, 여성)과 '종교유무'(무종교, 유종교)가 연구모형에 설정한 5개의 직접경로와 2개의 매개경로에

미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직접효과, 매개효과, 그리고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표본(77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5개의 직접경로('규범적 헌신→부양부담', '정서적 헌신→부양부담', '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정서적 헌신→돌봄실천의지', '규범적 헌신→돌봄실천의지')중에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경로만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4개의 경로에서는 모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 '부양부담'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 '부양부담'은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on)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교유무'에 따른 '무종교 집단'(211명)과 '유종교 집단'(563명)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비교를 위한 남성집단(318명)과 여성집단(45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5개의 직접경로들 중에서 '규범적 헌신→부양부담' 경로 뿐 만 아니라, '정서적 헌신→돌봄실천의지'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남 P. 074, 여 P. 074). 전체표본, 무종교 집단 및 유종교 집단에서와 같이 남성집단 및 여성집단에서도 '규범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 '부양부담'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헌신→부양부담'→돌봄실천의지' 경로에서 '부양부담'은 완전매개 효과(full mediation)가 있어, 성인 아들과 딸의 경우,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은 '돌봄실천의지'에 비록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부양부담'을 완전매개로 '돌봄실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상 전술한 각 효과검증을 통해 밝혀진 주요 발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의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 대한 '규범적 헌신'은 '돌봄실천의지'(전체 .393***, 남 .420***, 여 .392***, 무종교 집단 .523***v , 유종교 집단 .336***)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쳤다. 즉,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성인자녀가 노부모 돌봄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둘째, 성인자녀의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전체 -.024, 남 -.051, 여 .050, 무종교 집단 -.041, 유종교 집단 -.043)는 없었지만, '정서적 헌신'은 '부양부담'에 유의한 부적 직접효과(전체 -.239**, 남 -.230**, 여 -.218**, 무종교 -.205**, 유종교 -.227**)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봄에 대한 성인 자녀가 지

각하는 '부양부담'은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에 따라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양부담' 수준은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을 적게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표본, 무종교 집단 및 유종교 집단에서는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의 '정서적 헌신'이 높을수록 '돌봄실천의지'(전체 .119*, 무종교 집단 .124*, 유종교 집단 .127*)를 더욱 분명하게 갖게 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의 '부양부담감'이 증가하면, '돌봄실천의지'를 약화시켜, '부양부담'이 유의한 부적 매개역할(무종교 집단.038**, 유종교 집단 .039**)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 노부모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의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남 .114, 여 .104)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부양부담' 수준여하에 따라 '정서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양부담'이 완전매개역할(남성 집단 .042**, 여성 집단 .038**)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양부담'이 '돌봄실천의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돌봄에 대한 성인 아들과 딸의 '정서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인아들과 딸이 지각하는 '부양부담 수준을 감소(전체-.239 **, 남 -.230**, 여 -.218** 무종교 집단 -.205**, 유종교 집단 -.227**)시킬 수 있고, '부양부담'이 감소되면 돌봄실천의지'(전체 -.182***, 남 -.183***, 여 -.178***, 무종교 집단 -.185***, 유종교 집단 -.172***)가 강화될 수 있다. 전체표본, 무종교 집단과 유종교 집단에서 '정서적 헌신'이 향상되면 '돌봄실천의지'(전체 .119*, 무종교 집단 .124*, 유종교 집단 .127*)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돌봄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전체, -.182***, 남 -.183***, 여 -.178***, 무종교 집단, -.185***, 유종교 집단, -.172***)을 줄 수 있어, 성인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의 '정서적 헌신'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실천사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성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그리고 '돌봄실천의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돌봄이 필요한 자

신의 노부모를 돌보는 돌봄역할에 대한 '규범적 헌신' 및 '정서적 헌신' 그리고 실제로 '돌봄을 실천하려는 의지' 등에서 중년기의 성인 아들과 딸 간에 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권신장과 함께 가정 내 여성의 위치와 권리가 크게 향상되면서, 최근 들어 많은 성인 딸들이 노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힌 선행연구(김윤호·최유호, 2007)와도 부합한다. 신체부양과 같은 돌봄 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강조해온 성규범, 그리고 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는 시집부모 봉양이 우선이고 친정부모에 대한 의무감은 덜 강조하는 가부장제 하의 남성위주의 가족체계의 가치가 더 이상 절대적인 강력한 규범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성별' 뿐 만 아니라, '종교유무'에 따른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정서적 헌신', '부양부담' '돌봄실천의지' 수준 자체는 성인자녀가 성별, 종교유무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좌우되지 않는 비교적 안정되고 고정된 특성을 지닌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Wilson(1978, 이한음 역, 2000)이 설명한 '혈연 이타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 번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성인자녀가 종교를 가진 성인자녀들에 비해서,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무종교 .523***, 유종교 .336***)가 더 큰 것으로 밝혀져, '종교유무'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종교를 가진 성인 아들과 딸은 노부모 돌봄을 자식으로서 의무감 또는 책임감으로 인식해서 돌봄을 실천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를 가진 성인자녀들은 부모 돌봄의 동기가 자식으로 지켜야 하는 책임감 또는 의무감 수준을 넘어 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잠재평균분석결과, 종교유무에 따른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돌봄헌신 및 실천의지의 차이가 없었지만, 일변량 분석에서 기독교인들이 무교 또는 불교 및 천주교를 종교로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서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표 2>) 주목하게 된다.

종합해 볼 때,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돌봄실천'은 성인자녀들이 부모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에 크게 좌우되어 '규범적 헌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돌봄실천'을 약화시키는 '부양부담'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고, '돌봄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직접

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부모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의 '정서적 헌신'이 성인자녀의 돌봄실천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하여, 무종교인들에 비해 종교를 가진 경우, 자신의 노부모 돌봄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수준에 의해 훨씬 덜 좌우된다는 사실에서, 성인자녀의 '종교유무'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규명된 사실들을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규범적 헌신'이 노부모 돌봄을 실천하는데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녀의 '규범적 헌신' 향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가족생활에서 '효'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성인자녀들이 지각하는 '부양부담'은 '돌봄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성인자녀의 돌봄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부양부담'은 성인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을 얼마만큼 가지는지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감소될 수도 증가될 수도 있어, 성인 자녀의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의 향상시키는 것이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은 '돌봄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이니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돌봄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정서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실천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부모 돌봄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정서적 헌신'의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기독교인 성인자녀가 무교 또는 불교 및 천주교를 믿는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 돌봄역할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를 믿는 성인 자녀들이 병약한 노부모를 돌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르침 안에 '이타성이 요구되는 돌봄'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가족돌봄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실천개입

에서 이타성(altruism)의 증진을 위한 영성적 실천개입(spiritual practical intervention)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성인자녀들이 자신의 노부모를 위한 돌봄역할에 대해 정서적 호감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서적 헌신'의 경우는, '규범적 헌신'과는 다르게 '효의식'보다는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친밀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 및 친밀성 증진은 노부모 돌봄에 대한 성인 자녀들의 '정서적 헌신' 수준을 높이고,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양부담감을 덜 지각할 수 있다. 성인자녀들이 부양 부담감을 덜 지각할수록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실천의지'는 훨씬 더 뚜렷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자녀와의 친밀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무어보다도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현장과 관련학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의 성인자녀-노부모와의 친밀성 유지 및 증진은 별개의 단독 연구를 전개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친밀성은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장기간의 삶의 궤적(trajectory)을 통해 형성된 애정, 감사, 신뢰, 호혜(reciprocity)의 결과이다. 일회성 단기간의 개입 또는 지원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서비스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훈련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상호의존욕구와 자율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심리·사회적 개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신성자·이원준, 2012:84).

다섯째, '부양부담감'이 '돌봄실천의지'에 미치는 부적 직접효과를 고려할 때, 성인자녀들이 부양부담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외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고,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적 기술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유관기관들(지역복지관, 요양교육기관, 보건소 등)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당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 및 심리적인 소진을 예방·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주 가족 돌봄 제공자(major family care-giver)의 수고와 헌신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여 전달하고,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도 효과적일 것이다. '감사'와 '호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돌봄 제공자들의 내재적 만족감이 약화되고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Folbre, 2001; 윤자영, 2007:90). 돌봄 제공자 뿐 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가족 혹은 다른 성인자녀들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서비스 내용에 이러한 '감사'와 '호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개입과 함께,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훈련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 째, 병약한 노부모를 돌보는 일은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부양돌봄 제공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돌봄을 통해 자신이 내면의 힘을 체험하였다고 긍정적인 경험을 밝힌 선행연구의 보고를 상기할 때(Folbre, 2001, 윤자영 역, 2007:73), 노부모를 돌보면서 성인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한층 더 의미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를 찾아서 이야기를 구성(story telling)하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영상기록물(도큐멘트리) 자료를 만들어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보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들의 약 절반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의 한국가족생활에서 특정인이 가정에서 요보호 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전담하는 것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찍이 Folbre(2001)은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며, 역할공유를 통해 가족원들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피력한 바 있다(윤자영 역, 159). 노화로 병약해진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 돌봄 서비스는 젠더(gender)를 초월한 성인 자녀들 간의 돌봄업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사회적 서비스(예: 주간보호 서비스, 시설 및 병원 위탁,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공식서비스, 가정 내 개별 요양보호사 고용 등)를 함께 활용하면서, 가족원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보조 또는 병행하는 형태로, 보다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원들이 노부모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복지관, 동사무소의 주민지원센터, 혹은 지역의 보건소 등이 주축이 되어 상호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망을 구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가족 돌봄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인자녀들이 젠더를 초월한 돌봄 역할공유가 이루어져

야하고, 다양한 공식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는 가족 돌봄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임이며,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기의 성인 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친부모 돌봄역할에 대한 헌신, 돌봄실천의지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직도 많은 경우, 가정 내 요보호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며느리가 맡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를 연구대상에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혈연관계 유무(예: 며느리와 딸)에 따른 비교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종교유무' 여부에 따라 성인자녀의 돌봄헌신 및 돌봄실천의지 그리고 부양부담 수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성이자녀에 비해서, 종교를 가진 성인자녀의 '돌봄실천의지'는 돌봄에 대한 '규범적 헌신'에 의해서 덜 좌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성인자녀들이 '무교' 또는 '불교' 및 '천주교'를 가진 성인 자녀들에 비해서 돌봄에 대한 '정서적 헌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측정지표(indicators)들의 측정오차를 제거하지 않은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규모를 더 많이 확보하여, 다양한 종교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교배경 및 특성, 신앙생활 수준 등에 따른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 의식 및 행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이라는 힘든 노동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돌봄 제공자가 부양부담을 적게 지각하는 돌봄 제공자의 특성 및 강점을 탐색함에 있어서, 특히 영성적 관점에서 내면의 힘의 체험, 성장 및 성숙 등의 긍정적인 체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후속연구에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고경애 (1990). “한국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권태환·박영진 (1995).『가족구조와 가족형태』. 일신사.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한국인구학』. 23(1). 55-89.

김송애·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의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김윤정·최유호 (2007).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 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313-334.

김지영 (2001).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김혜경 (2006). “3세대 가족과 핵가족의 각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관계적 특성의 차이.”『사회복지정책』. 27. 55-77.

김혜연·김성희 (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박경숙 (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노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적 보호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완적관계인가?”『한국노년학』. 22(1). 241-260.

박순미 (2008). “노인부양유형과 부양서비스의 모형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박지영 (2012). “여성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부양동기 및 관계의 질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학』. 16(4). 159-180.

박현정·최혜경 (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노인의 노후 부양 가치관을 중심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3.

배병렬 (2007).『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청람.

서병숙·이신숙 (1991). “농촌기혼여성 노부모부양의식 부양 수행도.”『한국노년학』. 11(2). 191-211.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19. 207-233.

송현애 (1987).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신성자·이원준 (2012). “중년 남성과 여성의 부모와의 친밀성이 노부모수발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수발헌신과 수발효능감의 이차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 56. 61-92.

신성자·이원준 (2013). “노부모 수발헌신의 세대 간 전승효과 - 대구·경북 지역 중년 부부와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21(4). 49-73.

신영선 (2004). “맞벌이부부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및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우국희 (1997). “치매노인 수발인의 수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 - 가족갈등과 부정적 지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 10. 383-413.
우재현 외 (2000).『가족치료사전』. 한국상담아카데미 정암서원.
윤은경·조윤득 (2008). “부양자의 죄책감이 수발도움 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년학』. 28(4). 1249-1264.
윤현숙 (2001). “노인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노년학』. 21(2). 141-161.
윤현숙·류삼희(2007).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노년학』. 27(1). 195-211.
이미애 (2006). “주부양제공자의 하위집단별 부양부담 및 특정수발항목에 대한 부담도.”『노인복지연구』. 33. 279-300.
이민홍·윤웅경 (2008). “요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대처기술이 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31-54.
이원준 (2012). “중년부부가 지각하는 성장 시 부모의 헌신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간의 친밀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37. 77-109.
이원준·신성자 (2011).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 부모건강집단과 부모병약집단 간의 다집단분석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49(10). 15-27.
이원준·신성자 (2013). “중년 딸이 지각하는 부모헌신이 노부모 신체부양에 대한 정서적, 규범적 헌신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144-173.
이위환·권용신 (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의식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아동교육』. 14(2). 165-178.
이윤로 (2004).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노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연구』. 24. 53-70.
이은경 (1999). “대학생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이진숙 (2002). “독일의 공적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가족과 문화』. 14(3). 131-161.
이희자·김영미 (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임인혜 (1986).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장영은·엄기욱·김정숙·나카지마 가즈오 (2008). “요보호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원의 수발헌신척도 개발 및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노인복지연구』. 42. 79-98.
조병은 (2007).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59-75.
조병은·신화용 (2004). “노모부양에 대한 성인자녀의 공평성지각 및 이익에 따른 관계의 질:공평성이론에서 본 한국과 재미교포사회의 비교.”『한국노년학』. 24(3). 231-247.
조소연 (2001).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및 가족 지지와 부양자의 정신건강과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조윤주·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의식."『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조추용 (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연구』. 24. 71-99.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한국사회학』. 37(1). 91-115.
최승원·정혜정·서병숙 (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한국생활과학연구』. 15. 83-99.
최정혜 (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최혜경 (2001). "부양형태에 따른 신체취약 노인들의 정신건강."『대한가정학회지』. 39(1). 81-90.
최희경·이인숙 (2005).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강점관점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 14. 245-283.
한은주·최배영 (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한혜경·이서연(2009).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동기, 사회적 지지와 부양부담:성별 차이를 중심으로."『한국노년학』. 29(2). 683-698.
홍세희 (2009).『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시리즈 6』. S&M 리서치 그룹.
황해석 외 (2006). "부양에 대한 노인의 부담감과 영향요인".『대한보건연구』. 32(1). 53-65.
Cafferey, R. A. (1992). "Caregiving to the elderly in Northeast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7. 117-134.
Carpenter, B. D. (2001). "Attachment bonds between adult daughters and their older mother: Associations with contemporary caregiving." T*he Jouranl of Gerontology 56*B. Iss. 5.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4.
Horowitz, A. (1985). "Sons and Daughter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6). 612-617.
Lee, M. (2006). *The impact of caregiver stressors, resources, and perceptions on elder abuse: Applying the ABC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Lerner, M., Somers, D. G., Chiriboga, D., and Tierney, M. (1991). "Adult children as caregivers: Egocentric biases in judgements of sibling contributions." *The*

Gerontologist 31. 746-755.

Meyer, J. P., Allen, N. J., and Smih, C. A. (1993). "Commitment to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 Extension and test of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4). 538-551.

Nancy Folbre. (2001). The Ivisible Heart. 윤자영 역 (2007).『보이지 않는 가슴, 또 하나의 문화』.

Schumacker, R. and Lomax, R.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s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55.

ABSTRACT

The Correlates of the Middle aged Adult Children's Willingness to Perform Physical Care-giving Practices for their Elderly Parent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Burden of Care-giving,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Difference, and Religious Background and Affiliations.

Sung-Ja Shin (Kyungpook National Univ. Social Welfare Department)
Won-June Lee (Changshin Univ. Social Welfare Department)

The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middle aged adult male and female adult children's willingness to perform physical care-giving practices for their elderly parents who can not perform common day-to-day activities, and its correlates. The primary concerns of this study focus on:(1)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normative and emotional commitment to physical care-giving on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such physical care-giving practices for their elderly parents; (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burden of care-giving; (3)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eligious background between those who practice a religious faith and those who do not,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among 775 adult children aged in middle age, who have at least one living parent In order to conduct our resear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is explored by using AMOS program. First of all, we found four significant direct effects from 4 paths--'normative commitment→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emotional commitment→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normative commitment→the burden of care-giving', 'emotional commitment→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burden of care-giving→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however, we failed to find the direct

effect of the normative commitment on 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Second, we foun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the burden of care-giving from the path of 'emotional commitment→the burden of care-giving→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rom the path of 'normative commitment→the burden of care-giving→the willingness to provide physical caring practice'. We failed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the religious background and affiliation. Som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upon the findings.

key words: elderly parents, physical care-giving, emotional, normative commitment, family care-givers, gender, religious background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